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LSS 새 지침서에 의한 서북부, 동남부 지역 봉사자 교육 연수 시행

지난 1월 초, 서북부 4개 공동체에서 20명의 봉사자들이 씨애틀에서 열린 봉사자 교육 연수 세미나에 참석, 새로운 LSS 지침서에 의한 실습을 통해 세미나 봉사자로서의 자질을 연마했다. 참가자들은 후속 연수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5월중에 다시 서북부 봉사자 교육 세미나를 갖기로 했다. 1월 하순에 열린 동남부 봉사자 연수회에는 마이애미를 제외한 모든 공동체에서 25명의 봉사자들과 2000 LSS 지침서의 역자 (최영호 베드로)가 참가, 철저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짜여져 앞으로 본당 공동체에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2005 쇄신 세미나 일정

3/3-6	오마하(NE)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최 요셉 부제 (402-681-9985)
3/10-12	올란드(FL)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심 에밀리아 (407-381-0333)
3/13-15	KSC, 평화의 모후 선교회; 은사적 성모 신심 세미나; 남 홍익 (610-965-6168)
4/1-3	KSC; 대학생 성령안의 삶 세미나; 보스톤(MA); 황제임스 (617-388-1945)
4/4-6	동북부 봉사회; 내적 치유 세미나; 뉴튼(NJ); 이 테레사 (201-947-4718)
4/7-10	알바니(NY)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강인봉 (518-452-3732)
4/8-10	예수 마리아 성심회 피정; Plymouth (MI); 서 명희 (215-654-8048)
4/22-24	KSC; 대학생 선교 대회; 보스톤(MA); 황 제임스 (617-388-1945)
4/28-30	칼가리(Canada)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성 성식 (403-280-5279)
5/5-7	씨애틀(WA)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씨애틀 (WA); 박 정자 (425-774-1598)
5/13-15	NSC; Cenacle of Prayer for America-Pentecost 2005; 마이애미(FL); www.nsc-chariscenter.org
5/20-22	서북부 봉사회; LSS 봉사자 연수회; 이 용명 (425-338-2041)
5/27-30	덴버(CO) 공동체; 성령안의 삶 세미나; 이 현일 (303-360-6312)
5/27-30	중남부 봉사회; 성장 세미나; 휴스턴 (TX); 김 재문 (832-640-1404)
6/5-8	동남부 봉사회; 성령안의 삶 세미나; 아틀랜타(GA); 안 엘리자벳 (704-839-6445)
7/16-17	동남부, 동북부 봉사회; 성령대회; 이 테레사(201-947-4718)
10/4-14	KSC; 스페인 탐방과 파티마, 루르드 성모 발현지 순례; 신 요안나 (440-835-3219)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채신 가족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부활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NSC가 발간한 2000년 LSS 새 지침서에 따른 세미나가 여러 공동체에서 시행되어 본당 사목자와 신자들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KSC 는 지난 1월에 서북부와 동남부에서 각각 새로운 지침서에 의한 봉사자 교육 세미나, 연수회를 개최하고 새 지침서에

따른 '성령 안의 삶 세미나' 를 교의적, 사목적 차원에서 공동체 모든 신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했습니다.

KSC가 주관한 이 연수회에 참석한 봉사자들은 그동안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제기된 통칭 '성령 채신'에 대한 개념의 혼돈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 을 통하여 '은사적 채신' 의 진수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제2차 바디칸 공의회 정신에 따른 신앙 채신의 방도가 '은사 채신'이 아니라 바로 '은사적 신앙 채신'이며 '성령 안의 삶 세미나' 가 곧 '은사적 신앙 채신' 의 도구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에서 가르침 봉사를 해온 기존 봉사자들이 새 지침서의 정신으로 세미나의 개념에 새롭게 적응하기 위하여 이 교육 세미나-연수회에 참석하여 장차 '은사적 신앙 채신'을 위하여 봉사 할 수 있도록 새롭게 투신한데 대하여 감사하는 바입니다.

KSC 스페인 탐방 순례 일정 확정

KSC 유럽 스페인 탐방 (파티마, 루르드 성모 발현지 순례 포함) 일정 (10월 4-14일)이 확정되었습니다.

KSC 후원 사업으로 추진되므로 4월말 까지 참가를 신청하는 후원회원에게 우선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월 20일 현재 후원금

- 이 베드로, 테레사 (RI) \$50.00
- 유리나 (MI) \$500.00
- 김 베드로, 테레사 (OH) \$900.00
- 이 요셉, 안나 (MN) \$1000.00
- 마 자훈, 요세피나 (IL) \$100.00
- 서북부 봉사회 (NW) \$500.00
- 포틀랜드본당 기도회 (OR) \$100.00
- 예수 성심 기도회 (Toronto, Canada) C\$120.00

KSC: 보스톤 대학생 LSS

4월 25-26일 '미주 한인 대학생 선교대회'를 보스톤에서 개최하기 위한 준비로 4월 첫 주말에 대학생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LSS 세미나를 갖는다. 선교대회에는 동부지역의 대학생과 대학선교의 일꾼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이달의 기도 지향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면 안들어 주실리가 없습니다

KSC 웹 사이트 <http://kscusa.org> 를 통해 2분의 성령 가족께서 기도 지향을 보내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케모스, 미시간에서 한 은수 세실리아

“사랑이신 주님, 아무 희망도 없는 미국의 일부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어둠에 빠진 가엾은 영혼들을 봉헌합니다.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느끼게 해 주세요. 그래서 당신만이 삶의 목적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성령의 빛으로 감싸 주시어 어둠의 구석에서 아파하는 삶을 끊게 해주십시오. 아멘”

경남 거제에서 옥 윤삼 루도비꼬

“고현 성당 디딤돌 청년회 회원들과 저를 위해서.. 청년회를 맡은 1년 동안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청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청합니다.”

작은 나눔 큰 기쁨

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험한 오솔길을 신작로로 만들듯이,

실낱같은 시냇물이 모여 힘찬 강물이 되듯이,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이룹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을 놓아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춧돌이 됩니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채신 운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주님

-KSC 동남부 지역 봉사자 교육 연수를 마치고-
안 희숙(엘리사벳)

KSC 봉사자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작년 12월 초 사정이 여의치 못해 1월 말로 이곳 샬롯에 유치해 놓고도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초의 시간이 그냥 흐르고 있었다.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등록해 오는 이들도 없는데... 힘들게 꼭 해야 하는가? 그때까지 얼마남지 않은 시간들과 급히 찾아 얻으라고 20명밖에 자리가 안된다는 피정 센타의 여건들이 마음에 걸렸다.

"다음 기회로 다시 미루는 것이 어떨까?" 마음에는 계속 진행하는 데에 대한 부정적인 의구심이 들었다. 지도신부님, 봉사자들로 부터 반대와 찬성이 반반인 대답을 듣고 주저하는 마음으로 아침 기도 시간 끝에 주님께 가만히 질문을 던졌다. 질문의 끝말을 다 하기도 전에 가슴으로 즉시 들어오는 대답은 "물론 해야지" 였다! 깜작 놀라 다시 "주님?" 하는 내게 잔잔한 파문으로 당신이 뜻하고 원하신다는 원의가 전해져 왔다. 갑자기 잠에서 깨이는 것 같았다. "그럼 준비할게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할 수 있어요."라는 대답을 드리고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하기로 했다. 20명 밖에 자리가 되지 않는다는 피정센타의 여건이 마음에 걸려 그 다음날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았다. "그렇지만 주님, 여러 가지 여건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 "20명이면 봉사자 빼고 10여명인데 몇명이나 참석할까요?" 그즉시 "23"이라는 숫자가 가슴에 와 닿았다. "23명이요? 어떻게 그 숫자가 가능하지요?" 피정센타는 20명 밖에 안된다는데...3명은 센타 밖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럼 이왕에 23명이라면 봉사자들 빼고 참가자만 그 인원이면 좋겠어요."라고 말씀 드렸다. 그리고 기억나는 동남부 지역 봉사자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좋아요, 주님 이제 보름 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이지만 당신이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더욱 확실히 알아듣게 도와주세요."

기도 드린 후 제일 먼저 이전에 말씀을 드리고 허락을 받았지만 다시 한번 지도 신부님께 말씀 드리고, 봉사해 주실 정 신부님과 이 부제님, 봉사자들에게 준비와 함께 기도를 부탁 드렸다. 베드로씨가 너무 준비가 늦은 것 아니냐는 질책을 퍼붓는데도 이미 들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라고 대답 했다.

그날부터 매일 프로그램을 놓고 기도하면서 전화를 걸어 사람들에게 참석을 권유했다. 한편 피정센타에 연락해 20명보다 더 여유가 없는지를 알아보았다.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는 대답이었다.

그러나 피정 센타에서 최종 인원을 알려 달라는 일주일 후 꼭 23명의 숫자가 파악되었다!

센타에 전화를 걸기 전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응답은 한치의 오차도 없네요. 그런데 이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리도 함께 마련해 주세요."라고 말씀 드렸다.

담당자로부터 그 기간에 예약된 다른 팀의 인원이 줄어 우리에게 몇 명 더 자리를 내어 줄 수 있겠다는 말을 들으며 "오, 주님 감사합니다!" 말 밖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일정표와 진행 등을 놓고 마지막 의견을 나누던 중 조를 나누는데 있어 5명씩이면 좋겠다는 말을 듣고 "주님, 아브라함의 숫자의 간구를 자비로이 들어 허락하신 당신이시니 저도 한번 더 청을 드릴게요. 23명이라 하셔서 이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5명의 조가 맞도록 2명을 더 채워주세요."라는 말씀을 드렸다. 그 다음날 2명의 신청자가 더 들어와 참가자만 25명, 봉사자 6명 모두 31명이었다.

피정 센타에서 방 배정표를 받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방의 숫자와 인원이 하나의 여유도 없이 꼭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다!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 모여온 이들을 하나 하나 만나면서 하느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응답하여 참석한 이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단지 전화를 통한 알림에 응답해온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느님이 부르신 하느님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이었다.

하느님께서 맺어준 형제, 자매들!

무엇보다도 좁은 내 머리로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크신 당신 사랑을 전해 주시는지 연수 기간 내내 감사로움으로 가슴이 저려왔다.

이번 봉사자 교육 연수를 통하여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들을 키우고 보살피고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지...

10여년 쇠신 운동에 몸담아 봉사해 오면서도 미처 다 알아 듣지 못한 성령 안의 삶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얻는 귀한 시간. 한 강의 한 강의의 핵심과 교회 전체를 크게 바라보게 한 이 연수시간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는지 모른다.

다 알아 듣지 못하는 당신 사랑의 말씀이 못내 안타까워 무릎을 더욱 깊이 꿇어 죄송한 마음을 전할 때, 들려주신 말씀 "하느님 나라를 무엇에 견주며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더욱 작은 것이지만 심어 놓으면 어떤 푸성귀보다도 더 크게 자라고 큰 가지가 뻗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마르코 4, 30-32)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구원 위해 십자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사흘만에 부활하셨도다!

KSC 스페인 탐방과 성모 발현지 순례 회원 모집

아래와 같이 'KSC 스페인 탐방과 성모 발현지 순례'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정 : 2005년 10월 4일(화) - 14일(금) (10박 11일)
- 집합 장소 : 뉴욕 국제공항 (EWR); 집합 시간-4일 6:00 pm; Continental Airline 출발시간-4일 8:00 pm
- 비행기표 : LIS-EWR-PAR 왕복-US \$550.00+ - (각자 직접 구입)
- 문의 여행자 : 세계 여행자-Lydia Lee (전화: 1-800-555-9392)
- 회비 : US \$1,700.00 (현지 비용-숙식, 교통비, 입장료등 포함)
- 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예약금 US \$500.00 (Check) 과 함께 보내세요.
Dr. Janet Shin (전화: 440-835-3219), 2404 Georgia Drive, Westlake, OH 44145
- 마감 : 2005년 4월 30일 (40명 선착순-KSC 후원회원 우선)

KSC 스페인과 성모 발현지 순례 참가 신청서

이름(한글):	영세명(한글):	
Name(여권영문):	영세명(영문):	
Phones:(R) (B) (C)	Sex: M() F()	
Address:		
E-mail address:	Room-mate Name:	
여권국적(Nationality):	출발공항(Departure Airport):	
여권번호(Passport No):	항공사, 도착시간(Arrival Time):	
소속 공동체:	회비 납부: 등록 () US\$500 잔금 () US\$1,200	
<p>나는 순례 여행에 참석하여 KSC의 공식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수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 날짜: 2005년 월 일</p> <p>서명 Signature : _____</p> <p>신청자에게는 일정표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p>		
Official Memo:		